

인도성지순례 다녀 온 이야기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지음
운주사 펴냄 | 1만4500원

“정말 내가 인도를 다녀왔나? 하는 뜬금없는 의문이 들 때면 함께 간 도반 한 분이 소중히 ‘모셔’와 선물해 주신 부처님 다비장의 흙과 갠지스 강의 모래알을 들여다봅니다.”

향덕 정사가 인도성지순례를 다녀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 어냈다. 10일이 채 못 되는 짧은 일정 동안 향덕 정사가 만난 인도의 모습이 내면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소개돼 있다.

기단만 남은 스투파, 벽돌 몇 장, 바닷만 남은 건물터만을 만났던 인도성지순례의 험한길을 역사와 감동으로 메운 책이 바로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다.

저자는 성지 순례의 기쁨과 소소한 문화의 차이를 유머러스한 문체로 잘 버무려 사진집 또는 역사책을 읽는 듯했던 다른 인도기행기와는 차별화시키고 있다.

인도로 떠나고 싶다면? 가기 전에 이 책 한 권 읽고, 부처님이 왔던 가신 흔적만 남아있는 인도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느껴보자.

김지연 기자

달마선의 이론적 배경 조명



중국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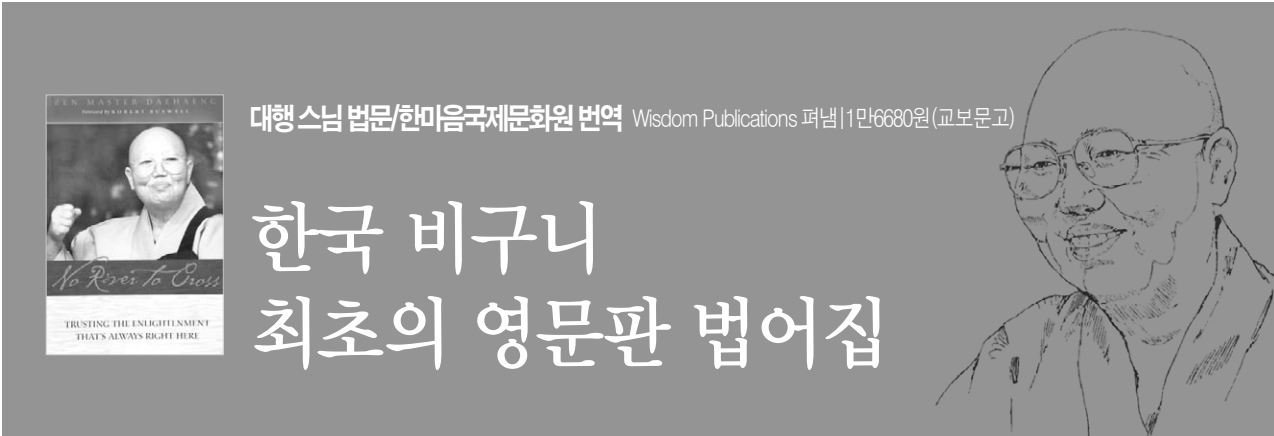
박건주 지음
운주사 펴냄 | 2만 5000원

중국 선의 맥은 달마에서 해능까지 이어지고 해능 이후 다시 많은 갈래로 나뉘지며 전해졌다. ‘선의 황금기’를 이룬 당 송 시대를 거치며 이전 시가와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불교는 초기의 달마선법을 이어버리고 새롭게 변한 불교를 즐기게 계승해 왔다.

박건주 교수(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는 달마선법 즉, 능가선법의 회복을 주장해 왔다. <중국초기 선종 능가선법 연구>도 그의 학문적 즐거움을 증폭해 온 결과물이다. 박 교수가 지난해 펴낸 <달마선>이 다소 개요서의 성격이었다면, 이 책은 학술적인 견해와 논증을 보다 깊이 천착한 연구서다.

총 12편의 논문은 ‘먼저 알고 닦는다’ 즉 문사수(問思修)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근본 수증체계에 의하지 않고 개시(開示)하지 아니하는 수행종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박 교수는 달마선법의 근간을 이루는 <능가경>의 선지를 두루 조망함으로써 학술에서 머물지 않고 수행자에게 지침이 되는 책이 되길 바라고 있다.

임연태 기자



한국 비구니 최초의 영문판 법어집

한마음 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어가 미국 보스턴에서 영문판으로 출간돼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이 7년에 걸쳐 번역작업을 한 원고를 보스턴의 유티컬출판사 Wisdom Publications가 출간한 <No River to Cross>가 현재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로 번역되는 이 영문판 법어집은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kyobobook.co.kr) 외국도서 코너에서 판매되는 <No River to Cross>는 최근 매주 주간베스트 종합 60위권에 기록되고 있다.

서구와 국내에서의 호응에 힘입어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내년 초에 한글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No River to Cross>는 지난 10월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에서 세계의 유명 출판사 대표와 편집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세계 출판계의 거목들은 “책의 내용이 서구사회에 아주 신선한 가르침으로 와 닿는다”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일깨워 주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평했다. 이 같은 평은 미국 보스턴의 스테디셀러 출판사로 알려진 Wisdom Publications사가 인터넷을 통해 판로를 열면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마음 요전>의 원리 수행 생활 활용 편을 번역한 <No River to Cross>는 한국 비구니스님의 법어집으로 외국 출판사가 처음으로 발간한 영문판이다. 그간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법어집과 일화집 등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출간해 왔다.

<No River to Cross>를 읽은 미국의 유명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서평을 쓰기도 해 화제다.

미국 지성사회의 거목들 자발적인 ‘서평’

UCLA 불교학연구소장 로버트 버즈웰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 책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불자들이 아우르는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다가서는 대행 스님의 역량이 잘 나타나 있다”고 소개하며 “대행 스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의외로 간편하지만 그 가르침은 놀라운 정도로 심오하다. 사람들의 품성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듣는 사람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해상을 수상한 바 있는 데이비드 메켄 교수(하버드대 한국학연구원장)는 “<No River to Cross>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며 때로는 놀랄 정도로 단도직입적이다. 이 책은 불교식 수행에 대한 북

잡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선별된 마음을 밝혀주는 일레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타당성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조지타운 대학의 프란시스코 조교수도 “평이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로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대행 선사의 역량으로 이 책은 장기 베스트셀러로서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불교잡지 ‘삼탈라 선’도 책의 구성과 정신적 가치를 극찬하며 자세히 소개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이끄는 정신적 ‘동력’

<No River to Cross>는 대행 스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 궁금해 하던 미주지역과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게 미국 출판계의 반응이다. 한마음국제문화원에 따르면 대행 스님의 법어집을 출판하기 위해 인도와 독일 등지에서 저작권 협의 요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과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폭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효’ 편지 공모 입선작 ‘감동’ 가득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 엮음
여시아문 펴냄 | 9000원

“아버지, 아마도 당신 딸이 벌써 엄마가 되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셨죠? 아이를 낳고 처음, 그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6년의 행을 받아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원망도 아닌, 증오도 아닌, 그저 옆에만 계시 주셨다면 내 이름 단 한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불러 주셨다면 저 이토록 서럽고 살지는 않았을텐데 하구요.”(‘효 편지 최우수상, 청주교도소 김OO)

한 순간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된 채 세상과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겠지만 ‘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격리된 공간에서 지극히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효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현장에서 오히려 효도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청북 옥천 대상사 주지 혜철 스님이 지난해부터 수감자들을 상대로 ‘효 편지 쓰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지금의 불효’를 ‘미래의 효’로 다지기 위해서다. 의외로 반응이 뜨겁다. 효 편지 공모에 1000편 이상이 응모되고 교정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다.

올해 효 편지 공모에서 입선한 작품들을 묶은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남녀 수감자들의 편지글 30편과 수필 5편, 시 15편, 신행수기 6편을 담고 있다. 어느 사연 하나도 절절한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이 없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대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답답하면 물이라	법봉	정토
5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에만
6	하루 10배 마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8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운주사
9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성철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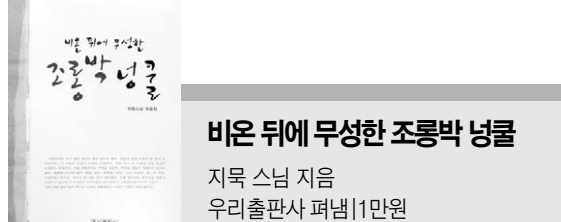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농사 지으며 쓴 글을 엮어...



비운 뒤에 무성한 조롱박 농글

지록 스님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30여 년 전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봉암사,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을 거쳐 수원 아라야선원에 머물고 있는 지록 스님이 쓴 에세이다. 이 책 제목을 스님의 토굴인 아라야선원에 있는 ‘조롱박 농글’에서 따왔듯이 책 속에는 스님의 일상 수행 생활에 대한 단상들이 가득하다.

지록 스님은 그동안 결망지고 떠돌아다니던 선원들 중에서 아라야선원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일을까,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뒷밭에 나가면 상추, 케일, 고추, 들깻잎, 토마토, 호박 등 농산물이 많아 손님들이 찾아와도 대접할 것이 많단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스님은 틈틈이 200여 편의 글들을 썼다.

그 속에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법정 스님 등 스님들의 이야기와 아라야선원에서의 생활 등이 붓가는 대로 자유롭게 소개돼 있다. 꾸밈없이 소박하고 따뜻한 스님의 성격이 글 속에 잘 나타나 책장을 덮고 나면 스님의 온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어려서부터 가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체로운 가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나마 안다.
완전히 지체로운 가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꼬집어내 쓸 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체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꼬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추천의 말, 저자)

모든 존재는 각각 <내면의 완전성>을 지닌다.
내면의 완전성이란 곧 붓다이자 다르마(法)이며, 삶을 꾸미는 에너지의 처소이다.
당신 속에 든 붓다를 깨울 방법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속의 붓다는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며 활동하는 붓다를 보는 법이 여기에 있다.
법주(法珠) 통하면 스스로 그 활동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의 현재 모습 속에서 전생과 미래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법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며, 그대 내면의 완전성은 100% 바른 점찰(占察)로 인도한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수행에 의해
현재와 미래 모습은 수시로 바꿀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각자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수행서이다.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www.bubju.kr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의 전모를 알고 인생을 경영하라!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는
21세기 최고의 수행 지침서

스라마나 석 호 지음

나를 알면 살기 쉽다

法珠修行秘記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 포함 정가 50,000원

현대판 점찰선악업보경 - 법주수행비기